



NH농협금융, 코로나19 극복 우리 농산물 지원
NH농협금융지주는 지난 17일 서울시 영등포구청을 방문해 코로나19에 따른 무료급식 중단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웃을 위해 우리 농산물과 손 소독제 등을 후원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김광수 회장(가운데)은 영등포구에 거주하는 독거어르신 가정을 방문해 우리 농산물 꾸러미를 직접 전달하고, 위로의 시간을 가졌다. /농협금융



NH농협은행, 용산노인복지관에 방역물품 지원
NH농협은행은 지난 17일 자금운용부문이 서울 시립용산노인종합복지관을 찾아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방역마스크 및 손세정제를 전달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확산으로 위축된 화훼 소비 촉진을 위해 꽃 나눔 행사도 실시했다. NH농협은행 김형준 부행장(오른쪽에서 두 번째)과 자금운용부문 임직원들이 지난 17일 서울 시립용산노인종합복지관을 찾아 방역물품을 전달하고 있다. /농협은행



심승섭 해군참모총장, 오만서 청해부대 격려
심승섭 해군참모총장은 17일(현지시간) 오만 무스카트항에 정박한 청해부대 31진 완강함(4400t급)을 방문해 파병임무 중인 장병들을 격려하고, 현장 작전환경과 근무여건을 확인했다. 해군은 심 총장이 오만 공식 방문 기간 중, 이란 국적 표류 선박을 구조하고 인도적 지원을 통해 소중한 생명을 구한 부대원들의 노고를 위로했다고 18일 밝혔다. /해군



GS리테일, 임직원 급여기부로 직원 치료비 19억 지원
GS리테일은 지난 2004년부터 현재까지(2020년 1월 기준) 본인의 중증 질병이나 가족 병환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직원 670명에게 '작은사랑나눔회'를 통해 마련한 금액 총 19억 3000만원을 지원했다. GS리테일의 '작은사랑나눔회'는 2004년부터 운영중인 내부 지원제도로, 약 4천여명의 임직원 중 자발적으로 가입한 가입자들이 월 급여 중 1000원 미만 금액(1원~999원)을 기부한다. /GS리테일



세종대 세종나눔봉사단, 우즈벡 이코마에서 봉사활동
세종대학교세종나눔봉사단은 지난 1월 6일~16일까지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시 이코마에서 진행된 세종나눔 해외봉사단 봉사활동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이번 봉사는 8기 세종나눔 해외봉사단원 19명과 프렌드아시아의 현지 통역단원 6명 등이 참가했다. 봉사단은 이코마의 한 센터를 중심으로 교육봉사과 노력봉사를 했다. 문화교류, 지구촌 시민학교, 문화탐방 등의 활동도 펼쳤다. /세종대

예술인 곁으로 성큼 다가선 '예술인 복지'



홍경안 작
시시일각

우리나라는 한국예술인 복지재단을 비롯해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서울문화재단 등의 각 지역문화재단을 통해 예술인들이 예술 외적인 요인으로 창작활동을 중단하는 상황에 이르지 않도록 보호하고, 지속적이며 안정적으로 작업할 수 있도록 다양한 예술인 창작·생활안정지원책을 마련해왔다.

그중에서도 2012년 설립된 한국예술인 복지재단은 예술인 복지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예술인으로서의 금지와 문화예술의 향기가 창작자 개인과 사회 곳곳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그동안 광복할만한 사업들을 펼쳐 오기도 했다. 대표적인 것이 '창작준비금지원사업'과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융자 지원사업'이다.

'창작준비금지원사업'은 예술가들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예술활동을 그만두지 않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예술인 복지법상 예술활동 증명을 완료한 예술인, 가구원 범위에 해당하는 인원의 월 소득인정액이 당해 연도 기준 중위소득 이내인 현업 예술인 1만2000명(작년의 경우 5500명)을 대상으로 1인 300만원을 지원한다. 2020년 예산은 약 360억원으로, 약 160억원이었던 지난해보다 2배 이상 늘었다.

'창작준비금지원사업'이 예술활동을 저해하는 요소 중 하나인 낮은 소득 개선에 방점을 둬으로써 창작동기 부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다면,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융자 지원사업'은 창작안정망 구축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일반 금융제도에서 소외된 예술가들은 단비와 같은 제도로 인식한다.

2~3%의 저리로 500만원까지 대출해주는 이 사업은 학자금, 장례비, 부모요양비 등 예술인들의 삶과 밀접한 관계를 맺는다는 점에서 예술인들의 관심이 높다. 주거부담 완화 차원에서 시행 중인 상환액 1억원의 전·월세 주택자금 대출과 향후 시행 계획에 있는 '예술저작물 담보 대출' 역시 주목받고 있는 지원제도이다. 2019년 85억원 규모로 시범 운영된 생활안정자금 융자는 올해 190억원으로 확대됐다.

크게 상향된 지원 규모도 그렇지만 최근 들어 유독 눈에 띄는 건 어떻게 하면 예술인의 입장에서 창작자 중심의 예술인 복지가 구현될 수 있는지에 대한 재단의 고민과 실천이다. 일례로 재단은 올해부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도입해 신청인 구비서류를 12종에서 3종으로 간소화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처럼 예술가들의 편의를 고려해 지원 신청 입력항목을 최소화했으며, 지원을 위한 소득과 재산 심사 대상을 신청인, 신청인의 배우자, 부모, 자녀, 사위, 며느리에서 본인과 배우자로 축소했다. 이는 보다 많은 예술인에게 고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 조치이지만, 예술인 편에서의 시선을 증명하는 것이기도 하다.

예술인 복지사업에 참여하기 위한 첫 단추인 '예술활동 증명' 또한 예술인의 눈높이에서 재검토된 사례로 꼽힌다. 40여명에 불과한 인원으로 방대한 사업들을 수행해야 하는 직원들에겐 또 다른 수고로움이나 내부 행정과정을 도입해 정량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자료를 제출한 예술가들이 최소한의 시간으로 정정할 수 있도록 활동 증명 방식에 변

화를 줬다.

나아가 차수로 모아 진행하던 전문가 심의를 상시로 변경해 결과를 알기까지 오랜 시간 기다려야 하는 예술인들의 초조함도 없었다. 기존엔 정량적 요건에 맞지 않는 신청 건이 다수 포함돼 전체 심의 진행 속도가 저하되는 단점이 있었다.

이 밖에도 재단은 보다 효율적인 복지구현 차원에서 지난 1월 초 일찌감치 '집담회'를 마련해 의견을 청취하고, 창작자와 매개자들의 인기를 한 몸에 받고 있는 '예술인과견지원사업'은 예술가들이 기다릴 것을 생각해 공모일정을 사전에 안내하는 등 섬세한 접근을 보여줬다. 이 모두가 예술인들의 삶 속으로 한 발 더 다가서려는 재단의 의지이자, 예술인의 삶 속으로 다가서기 위한 고민의 연장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아직까지 예술인 복지가 '가난'이 내재한 삶의 방식과 작동원리를 파악해 대안을 제시하는 단계에는 이르지 못한 채 주로 경제적 지원에 치우치는 한계를 갖고 있다는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예술인 복지의 시작인 '예술활동 증명'이 활동경력이라는 정량적 기준만 적용돼 취미에 머무는 생활예술인과 아마추어들의 유입이 적지 않은 현실은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특히 국민 세금을 바탕으로 한 예술인 복지 사업이 창작의 가치와 예술인의 삶에 어떤 변화를 유도했는지에 관한 가시적인 지표 제시가 불충분할뿐더러, 예술인이 우리 사회에 어떤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와 대국민 홍보 또한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예술인 복지재단이 '예술인재단'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싹든 좋은 짚어봐야 할 부분이다. /미술평론가

롯데멤버스, 착한 신학기 캠페인 1억 기부

롯데멤버스가 지난 17일 서울 중구 대한적십자사 본사를 찾아 창립 5주년 기념 '착한 신학기 캠페인' 기부금 1억 원을 전달했다.

착한 캠페인은 롯데멤버스가 매년 1월 한 달간 엘포인트(L.POINT) 회원 및 제휴사와 함께 진행하는 고객참여형 공유가치창출(CSV) 활동이다. 지난 5년간 ▲착한 돌잔치 ▲착한 도시락 ▲착한 장보기 ▲착한 시네마 등 캠페인을 통해 누적 5억여 원을 기부했다.

올해는 하이마트와 함께 저소득층

가구의 아동, 청소년, 대학생에게 노트북을 지원하는 착한 신학기 캠페인을 진행했다. 캠페인 기간 동안 하이마트에서 PC, 모바일 등 IT 제품 구입 시 엘포인트를 적립하거나 사용하면 롯데멤버스가 건당 3000원의 기부금을 마련했다.

전형식 롯데멤버스 대표는 "저소득층 가구의 학생들도 정보 격차 없이 마음껏 공부하고 디지털 세대로서 꿈을 키워갈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롯데멤버스 착한 신학기 캠페인 기부금 전달식 /롯데멤버스

인사

- ◆ 기획재정부 ○ 실장급 인사 △ 국제경제관리관 허장 ○ 국장급 인사 △ 부총리정책보좌관 강완구 △ 개발금융국장 박일영
- ◆ 고용노동부 ○ 국장급 전보 △ 고용지원정책관 황보국 ○ 국장급 승진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상임위원 김준영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상임위원 권창준 ○ 과장급 전보 △ 인적자원개발과장 최영범 △ 일자리안정자금지원추진단 팀장 박희경
- ◆ 조달청 ○ 과장급(직위승진) △ 조달품질원 품질점검과장 문수호 ○ 서기관 승진 △ 대변인 실 양영호 △ 구매총괄과 이봉규 ○ 기술서기관 승진 △ 우수제품구매과 김용길 ○ 과장급 전보

- △ 해외물자과장 양재규
- ◆ 한국투자공사 △ 경영기획팀장 민병성
- ◆ 하나금융투자 ○ 주식본부장 선임 △ 전무 차기현
- ◆ 국민일보 △ 편집인 겸 논설위원실장 김영호 △ 논설위원실 대기자 김진홍 △ 수석논설위원 박정태 △ 편집국장 고승욱 △ 논설위원 오종석
- ◆ 더밸류뉴스 △ 편집국장 조창용
- ◆ 나눔경제뉴스 △ 대표이사 겸 편집국장 차석록 △ 경영지원본부장(전무) 이상일 △ 나눔투자연구소장 전재영
- ◆ 소년한국일보 △ 부사장 염희선

부음

- ▲ 최대수씨 별세, 최병철(현대차증권 사장)씨

- 부친상 = 18일,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23호, 발인 20일, (02-3010-2263)
- ▲ 정연례씨 별세, 백영철(우리안전엔지니어링 전문위원)·삼철(능해의원 원장)·기철(한겨레신문 논설위원)·인숙씨 모친상, 조정숙·기순신(명지대 교수)·안선희(한겨레신문 2에디터)씨 시모상, 오평종씨 장모상 = 17일 오후 9시, 서울 이대목동병원 장례식장 8호실, 발인 20일 오전 7시, (02-2650-2748)
- ▲ 윤복향씨 별세, 원경호(이데일리TV 국장)씨 모친상 = 17일 오후 11시, 인하대병원 장례식장 3호실, 발인 20일 오전 7시, (032-890-3193)
- ▲ 남소희(울산제일일보 기자)씨 분인상 = 18일 오전, 울산중심삼정병원 장례식장 특1호실, 발인 20일 오전 8시.